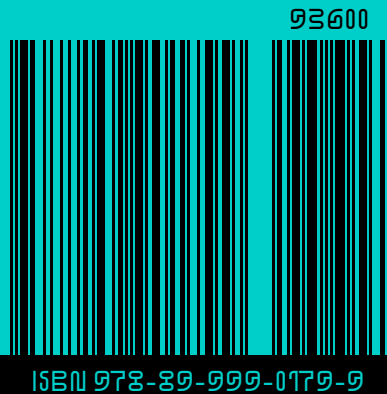


퀀텀점프 2019 릴레이 2인전

QUANTUM JUMP 2019 2 Artists Relay Show

Quantum Jump 2019 2 Artists Relay Show

퀀텀점프 2019 릴레이 2인전



QUANTUM JUMP

경기도미술관과 경기창작센터는 청년 작가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협력전시 《퀀텀점프》를 2015년부터 이어왔습니다. '퀀텀점프'는 비약적 도약을 뜻하는 물리학 용어로, 선정된 예술가들의 응축된 에너지와 가능성을 나타내는 프로젝트명입니다. 두 기관은 경기창작센터 입주 작가 중 선정된 작가의 릴레이 전시를 경기도미술관에서 개최함으로써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d Gyeonggi Creation Center have been holding the exhibition *Quantum Jump* since 2015 to support young artists and showcase their creative results. “Quantum Jump” means the condensed energy and possibilities of selected artists, as a physics term for a leap forward. The two organizations support new attempts of the artists, selected in Gyeonggi Creation Center, by holding relay exhibitions at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정재희	7
이상한 계절	
2019. 9. 17. — 2019. 11. 10.	
박미라	33
밤물결	
2019. 11. 19. — 2020. 1. 19.	
작가 약력	58
평론가 이력	62

Jaehee Jung	7
Strange Season	
Sep. 17, 2019 — Nov. 10, 2019	
Mira Park	33
The Waves at Night	
Nov. 19, 2019 — Jan. 19, 2020	
Artists' CV	58
Critic's Bio	62

2019. 9. 17. — 2019. 11. 10.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퀀텀점프 2019 릴레이 2인전

정재희 이상한 계절

Jaehye Jung
Strange
Season

QUANTUM JUMP 2019 2 Artists Relay Show

Sep. 17, 2019 — Nov. 10, 2019
Project Galler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이상한 계절 (2019)

에어컨, 공기청정기, 히터, 선풍기, 가습기, 제습기, 에어컨 실외기, 진짜와 가짜 식물, 인조 잔디, 화분, 선반, 벤치, 콘크리트, 좌대

가변크기

사진 정재혁



Strange Season (2019)

Air Conditioner, Air Purifier, Heaters, Fans, Humidifiers, Dehumidifier, Outdoor AC Unit, Real and Artificial Plants, Artificial Grass, Plant

Pots, Bench, Concrete Pedestal

Dimensions Variable

Photo by Jaehee Jung

나는 다양한 사물 중 전자제품을 주재료로 삼아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내게 전자제품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용기술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나 구조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물이다. 나는 이런 전자제품의 형태와 질감, 물리적 기능, 탑재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기존의 효용성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해석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날씨와 관련된 전자제품들을 새롭게 맥락화해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환경에 대한 성찰을 유도해 보고자 한다.

《이상한 계절》은 각기 다른 날씨에 작동하는 전자제품들을 활용해 낯선 환경을 제시하는 하나의 설치작품이자 전시이다. 나는 자연의 고유한 법칙에 의해서든 인간의 무관심 때문이든 날씨의 변화가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변덕스럽거나 가혹한 날씨가 내겐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인다. 되레 이상한 건 외부의 사태와는 별개로 늘 일정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는 내부의 환경이다. 이런 착상을 바탕으로 나는 전시공간에 모순적인 메커니즘을 구현한다. 결과적으로 나는 관객들이 인간만을 위해 조성된 이상한 계절을 마주하며 더 넓은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태를 상상하고 사유하길 기대한다.

정재희

10

I mainly use electronic products, along with various other objects, as the materials for my artistic creations. I see electronic products as a readily available technology and important objects which reflect on the environment and the system in which we live. Moreover, I attempt to interpret these forms, textures, physical functions, services, or contents, not from utilitarian value, but from different perspectives. In this exhibition, I contextualize electronic products related to the weather in a new way to induce contemplation of the environment shared by all beings.

Strange Season is simultaneously an installation and an exhibition which presents an unfamiliar environment using electronic products that work in various weather conditions. I think that changes in the weather originate from some causal relationships such as the inherent laws of nature or human apathy. Therefore, variable and extreme weather doesn't seem strange to me, but rather, reasonable. What is bizarre is the internal environment that maintains a constant temperature, humidity, and clean air quality, independent of external events. Based on this idea, I realize a paradoxical mechanism in the exhibition space. As a result, I expect the audience to imagine and think about what happens in the wider world, facing the strange season created only for humans.

Jaehee Jung



11





최재원

사물들



Things

Jaewon Chey

네비게이터

자동차의 네비게이터가 나온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어느 겨울날, 나는 귀가 후에 한 메모를 남겼던 적이 있다.

“한밤중에 차에는 총 세 명이 타고 있었다. 오늘 차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한 사람은 네비게이터였다.”

인공지능 스피커

내 방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artificial intelligence speaker, AI speaker)에 한밤중에 갑자기 불이 들어올 때가 있다. 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피커가 갑자기 “잘 안 들려요.”라고 말을 할 때가 있다. 처음에는 잘 안 들린다는 말 자체를 너무나 급작스러워 제대로 알아듣지조차 못할 때가 많았다. 또는

방에 아무도 없음에도 어떠한 객체의 반응을 센서링한 것인지 놀라 소름 돋듯이 기겁할 때가 있다. 아직 감도가 좋지 않아 그렇다는 전문적인 설명을 듣고 나서도 그렇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그렇게 주체처럼 작동하는 객체가 되기도 하고, 나는 익숙하지 않게도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는 디레벨링(deleveling) 과정을 통해 객체지향존재론으로 OOO(object-oriented ontology)를 체화해 가는지도 모른다.

인간 없는 연극

독일 작가 아달베르트 슈티프터(Adalbert Stifter, 1805-1868)의 풍경소설 『고조할아버지의 가방(Die Mappe meines Urgroßvaters)』(1864)에서 영감을 받아 제목이 붙여진 <슈티프터의 물건들(Stifters Dinge)>은 2007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재원

사물론

샤우슈필에서 공연되었다. 음악가이자 퍼포먼스 아티스트인 하이너 괴벨스는 “배우가 부재한 연극”, “해석이 부재하는 음악”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물과 안개, 자연의 풍광, 피아노 그리고 몇 개의 만들어지다 만 듯한 타악기 등만으로 공연을 구성했다. 여기서 드러나는 자연은 자아를 발견하게 하는 전범(典範)으로서 인간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녹취 당시의 음성으로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의 주문과 콜롬비아 인디언의 노래, 그리스 민요가 주문처럼 등장하기도 한다. 자연현상을 구현하는 모습은 연금술적 의식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 그레이엄 하먼(Graham Harman)의 말처럼 인간이라는 주체, 인간이 구성한 사회와 문화는 이미 객체화된 자연 속의 수많은 객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괴벨스가 이러한 인간 없는 연극과 그러한

부재를 통해 이러한 ‘관계’들을 재맥락화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정재희 작가의 사물들은 대상화된 설치미술로서의 ‘주어진’ 자리를 탈피하고자 하는 것 같다. 뒤상이 레디메이드를 통해 창조자로서의 예술가의 권위를 해체시키고자 의도했듯이 창작자가 아니라 특정한 오브제, 나의 취향이 개입하여 그것을 부르주아적으로 포획하지 않도록 공산품은 마치 하나의 대상에서 사물들로 비춰진다. 익명화된 사용자를 위해 고안된 가전제품들은 생활과 일상에서 특정한 기능과 용도를 수행하는 역할을 벗어나 작가의 특정한 전치적(displaced) 맥락을 위해 에이전시(agency)로 수행된다. 정재희 작가에게는 이러한 개입이 예술적 수행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실천이 아닐까? 작가는 대상(object)의 착시로부터

14

Navigator

One winter’s day, not long after the car navigator system was invented, I wrote down the following after returning home.

“There were three passengers in the car tonight. Yet, it was the navigator who spoke the most.”

AI Speaker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speaker in my room sometimes lights up suddenly in the middle of the night. There are also times when it says, “I can’t hear you well,” despite the fact that I did not say anything. At first, confused to hear it speak all of a sudden, I even failed to understand what it meant. It also frightened me to the point of goose bumps, as the speaker seemed to sense the reaction of an object that was not me, though there was no one besides me in the room. Someone gave me a professional explanation, saying that it was because the speaker lacked sensitivity. Still, I freaked out every time I heard it saying something unexpected. Through this process of “deleveling”

in which the AI speaker becomes an object that acts like a subject, and in which I become an object instead of a subject, in a quite unfamiliar way, I seem to experience object-oriented ontology (OOO).

A Humanless Play

The play entitled “Stifter’s Things” (Stifters Dinge), whose title was inspired by a German landscape novel, *My Great Grandfather’s Portfolio* (Die Mappe meines Urgroßvaters, 1864) by Adalbert Stifter (1805-1868), premiered at the Schauspiel Frankfurt in Germany in October 2007. Heiner Goebbels, a musician and performance artist, produced the performance with only water and fog, natural sceneries, a piano, and a few percussion instruments, which even took the stage in a half-built form, and it was described by critics as “a play without actors” and “music without interpretation.” The nature featured in the piece communicates with humans as the epitome of a guide to self-discovery. The sounds created during the performance, which were collected from locals

Jaewon Chey

Things

of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clude incantations of the indigenous people of Papua New Guinea, songs of the indigenous people of Colombia, and folk songs of the Greeks. The way natural phenomena are represented in the work reminds the audience of an alchemist ritual and leads them to understand that, as Graham Harman said, the human subject and the society and culture that humans have constructed are no different from the many already-objectified objects in nature. What is important is that Goebbels has invited us humans to recontextualize these relationships through this “humanless” play and absence.

Nature-Culture Continuum

Against this background, in today’s world, the art of reasoning about human culture and nature as a continuum is naturally emerging as a leading thought. A reflective idea that believes dominant and oppressive cultures should come to an end has led to the discussion and practice of the creation of a nature-culture continuum by establishing a third nature, that is a nature-

friendly culture of sustainable life. Bruno Latour's actor-network theory is at the antipode of the modern, dichotomous way of thinking, which originated from Cartesian dualism of mind and body (spirit and matter) and then developed into Kant's subject-object distinction. Later, Durkheim's sociological theories assumed that the essence of modern man lies in the proliferation of “hybrids” instead of the fixed dichotomy of nature and society. In other words, it was thought that, through hybrids, human beings would be able to better understand society and nature, politics and science, and cope with the duality of current political and social crises and environmental and technological crises. However, what if humans totally give up the “mattering,” which assumes that the production of hybrids can be furthered through networking, with the evolution of humans and non-humans, subjects and objects, and technologies, or the viewpoint that associates society with subjects and nature with objects? If everything can be delevelled and redefined from the point of view that sees all beings as objects and the world

15

사물성(thingness)을 이끌어내며 이상한 계절에 붙어닥치는 불안한 계절풍의 알레르기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 사물들은 바로 우리의 생활의 사용에 인습화된 것으로서 친근(heimlich)하지만 동시에 낯설고(unheimlich), 매뉴얼화된 기능으로 투명해지지만 주어진 매뉴얼을 거부하면서 불투명하거나 장애의 징후를 드러낸다.

자연-문화 연속체(Nature-Culture Continuum)

정재희 작가의 작업의 배경들을 살펴보자. 더 이상 소위 '미디어아트'란 회자되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지극히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의 폐해로부터 반성하기 위해 근대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문화와 자연을 연속체로 생각하는 사유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문화가 청산되어야 한다는 반성적 성찰로 인해 제3의 자연, 즉 자연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명 문화를 구축함으로써 자연-문화 연속체(nature-culture continuum)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자되는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도 근대적 이분법을 반대한다. 데카르트의 물질과 정신에서 이원론에서 비롯되어 칸트의 객체 주체로 전개되었고 뒤르켐의 사회학에 와서는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으로 고정된 것을 근대인의 본질로서 이분법이 아닌 '하이브리드'의 증식으로 사회와 자연, 정치와 과학을 더 잘 이해하고, 현재의 정치와 사회적 위기, 환경과 기술의 위기라는 이중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인간과 비인간, 주체와 객체와 테크놀로지의 진보 속에서 네트워킹을

정재희

자연

16

as a set of relationships between objects, can there be ethical, aesthetic, and political practices that lead to a new understanding of the world? These questions are important philosophical backgrounds for the *Strange Season* exhibition.

Mattering

Jaehee Jung says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show the artist's world view or attitude than to create purely "retinal art," as Duchamp put it. Jung, while studying in Germany away from the gravity of his native language, experienced a sort of detachment, and as the time he spent alone increased, he perceived the worl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ther." As he discovered that working in such a profound time was not an act of creating something, but rather an act of "noticing," his work methods changed. As he observed everyday life in the city, he found that it contained many aesthetically beautiful elements and that, like ready-made products, once these objects are placed in an exhibition format, people perceive them in an aesthetic way. The artist said it was

important for him to create aesthetic points by slightly changing the existential mode of the object instead of artificially manipulating it.

"I contemplate how I could let go of the idea about the object that I had, as if the existence of myself is excluded as much as possible. When I think of something from the standpoint of that 'thing,' not 'object,' putting aside myself, I can discover different aspects of it."

Yet the creator confesses that he keeps falling into a paradox. Does it mean that he cannot break away from the frame of language which brings about the constantly changing arrangements and displacements, though he pursues horizontal ontology with objects. If that is the case, Lautréamont's "chance meeting on a dissecting-table of a sewing-machine and an umbrella" also becomes a displacement of linguistic elements, though it is actually an act. In the end, the artist ends up practically "mattering" things and experimenting with them. Before the process

Jaewon Chey

Things

통해 더 많은 하이브리드가 생성된다는 매터링(mattering), 즉 사회를 주체와 연결하고 자연을 객체와 연결하는 관점 자체를 포기한다면 어떨까? 만일 모든 것이 객체라는 관점으로, 세계를 객체와 객체들의 관계로 수평적인 지형학으로 디레벨링(deleveling)하며 재정립할 수 있다면, 세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윤리적, 미학적, 정치적 실천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은 정재희 작가의 《이상한 계절》 전시에 있어 중요한 철학적 배경들이다.

매터링(Mattering)

정재희 작가는 뒤상이 말한 망막적인 것으로서 예술작품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예술가의 세계관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작가는 모국어의 중력을 떠나 독일에 가서 거리두기가 가능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타인으로서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깊은 시간 속에서 작업을 한다는 것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리는 행위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의 작업 방식도 바뀌게 되었다. 일상을 보면서 충분히 미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레디메이드처럼 미술관의 포맷에 들어가면 그것을 사람들이 미적으로 수용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작가는 작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보다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존재양식을 살짝 바꿔 미적인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최대한 배제된 것처럼, 내가 가졌던 사물에 대한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저를 내려놓고, 어떠한 것('object'가 아닌 'thing')으로

17

of mattering, assuming that things would have certain values is only about making premises. What becomes clear the moment they are represented in space and matter is that, in most cases, the artist himself did not fully understand them. "So, I feel like creating an exhibition is about exploring what I do not know."

He began to create works that use electronic devices as media as he could take an easy approach when he studied in Germany. "I understood the history of electronic products through the vacuum cleaner. Once an electric device and an electronic one, the vacuum cleaner has now turned into an autonomous robot." He is also interested in the smartphon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IoT. When you turn on a smartphone, human beings become the object of measurement in the IoT environment, which means the objectification of humans. Humans can indeed still take control by planning the UX design and software of machinery. He added why he did not pursue today's high-tech as he observes

humans that can be objectified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t was his strategy to use low-tech to respect the possibilities and roles of devices. He explained why technology becomes rather more compelling when it turns into products for mass consumption. "As a commoner, we can only use technology in the form of products. I think I'm interested in universality. For high-tech may only be the monopoly of the minority."

Duchamp and SATURN

Jahee Jung realized that a form of art can be established based on new ideas created by the artist himself. From then on, he became interested in everyday life and objects. Isn't it ironic, how constant levels of temperature, humidity, and air quality are supplied to the interior by technology, regardless of the weather outside? People hear news about tornadoes, earthquakes, and tsunamis through mass media and try to analyze their patterns; however, the artist thinks that they are changing due to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objects" on the premise that



사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것의 다른 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도 작가는 끊임없는 역설에 빠진다. 인간 없는 전시 또는 대상과 그의 수평적인 온톨로지(ontology)를 지향하지만 사실 그것은 다른 ‘언어적’ 배치이자 전치라는 끝끝내 언어적인 것을 탈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일까? 그렇다면 로트레아몽의 수술대 위의 재봉틀도 실은 액팅인데 언어적인 것으로 전치(displacement)하고 끝나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상한 계절》 전시에서 주어진 실내 온도를 가열시키는 난로와 이 온도를 매터링하여 낮추려는 에어컨의 역설에서 보이듯이, 결국 작가는 사물들을 실질적으로 물질화(mattering)하며 실험을 하게 된다. 매터링 하기 전에 단지 사물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전제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을 공간과 물질에 실현하는 순간에 확인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건 작가 자신이 스스로 몰랐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때라고 한다. “그래서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전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 있어요.”

작가가 전자제품을 매체로 하는 작업은 독일에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전자제품의 역사를 청소기를 통해 이해했습니다. 청소기는 전기제품에서 전자제품, 그리고 현재 자율성을 가진 로봇으로 바뀌었잖아요.” 작가는 IoT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마트폰에도 관심을 두었다. 스마트폰을 on 하면 IoT 환경에서 인간 존재는

재현

수용

20

nature exists as individual objects. Then, it is normal that the weather is unpredictable and that constant humidity and temperature created and maintained just for humans is an abnormal environment. From this perception, his inquiry begins. He produces “wasteful” situations that take place when electronics devised for different seasons and conditions, such as a humidifier and a dehumidifier, work all at once.

“Real plants and fake ones will be mixed together to create an indoor garden, and electronic devices corresponding to different weathers will be operated at the same time in the exhibition space. That means the audience will absorb various senses in a single space. Looking into it, the audience might discover contradictions. I’m allowed to use the deck outside as well, so I will lay artificial grass and run an outdoor unit of the air-conditioner. This will then give you the feeling that the strange season in the exhibition space is summarized in the outdoor unit of the air-conditioner.”

This was what he said about his plan for the upcoming exhibition. “I prefer utmost simplicity in my works. The audience can attach various meanings or just simply accept them when they see them. When I use something as a material, that means I found some implications in its own existence.”

“When it comes to a smartphone, it can be reducible to light and sound. The same goes for cameras.” He told me about an experience over the display stand at a SATURN store where they sell electronic devices in Germany, when he tested a camera without a memory card in it. “When I visited SATURN, the camera worked without a memory card. The manufacturer altered its settings such that it takes only one picture for demonstration. That was the point when I thought about a different role of a camera apart from its original role.”

“In the process of working, my point of view

Jaewon Chey

Things

측정 대상이 되는데 이는 인간의 객체화를 의미한다. 물론 기계장치들의 UX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를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지만 말이다. 작가는 테크놀로지의 발전 속에 객체화될 수 있는 인간을 바라보며 현재 하이테크를 추구하지 않는 이유도 부연했다. 오히려 로우테크로 주어진 장치적 가능성과 역할들을 더욱 존중하는 전략으로서 말이다. 작가는 기술이 대량 소비재로서 상품이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관심이 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반인으로서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상품의 형태 밖에는 없습니다. 저는 보편성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이테크는 소수의 전유물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on it has been changed. When I first touched the camera at SATURN, I only focused on its immediate clicks. I visualized cameras unequipped with a memory card shooting the audience with lights and sounds in the darkness. As I put it into shape, the abrupt sounds and lights of cameras felt, not aggressive, but somewhat different. It began to be interpreted as the present, the moment everything becomes blank in front of your eyes with an instant ‘click’ sound.”

Strange Season

“It’s quite an old idea for me to phenomenalyze the simultaneous operation of intermixed electronic devices related to seasons. I was lucky to see a good moment to actualize the idea as the government passed a bill that regards particulate matter not as a natural disaster anymore but a man-made one.” The artist says he intentionally read books related to media aesthetics out of interest while in the university. Though not necessarily related, he was fond of skeptics, like Adorno. “I found it amusing when I concentrate

뒤상(Duchamp)과 자툰(SATURN)

작가는 생각의 발견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일상성이나 사물들에 관심을 가졌다. 사실은 외부의 기후와 상관없이 내부에 특정한 온도와 습도, 공기의 질 등을 기술을 통해 특정하고도 일정한 조건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야말로 아이러니한 것이 아닐까? 대중 매체를 통해 토네이도와 지진, 쓰나미 등을 접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들을 하지만 작가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객체로서의 존재와 객체들 사이의 인과 관계 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간만을 위해 조성된 이상한 일정한 습도와 온도가 이상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거기서 문제의식이 시작되었다. 서로 다른 계절과 조건에 작동하는 전자제품을 작동시켰을

21

on existence itself in my work. If my works are only constituted with ideas, and I just think about how I could make them better ideologically, I get exhausted; when the cycle is repeated, it leads me to nihilism. I should touch. I like things as they are, and when they function in real time. Maybe that’s because the video doesn’t appeal that much to me. I like encountering real things in front of my eyes. You know, the feeling of sculpture. Sculptures are tactile. I’m talking about the presence you can touch before your eyes. And spending time together.”

The interview with the artist took several hours at a cafe. As the air inside felt stuffy, I suggested we take a walk for a while. The village I walked through with him had once been called “Hyeonjeong-dong” before it was incorporated into “Muak-dong,” and then it was called “Okbaraji Alley” before it finally became home to “Gyeonghuigung Lotte Castle.” As I looked around the urban landscape where darkness already fell as we walked up the steep slope, I thought about my own criticism of *Strange*

때 거기서 벌어지는 소모적인 가슴기와 제습기를
들어 놓는 사건들을 전시에서 연출하기로 한
것이다.

“전시공간에 실제 식물과 가짜 식물들이 섞여
실내 정원으로 연출되고 서로 다른 날씨에
대응하는 전자제품들이 동시에 작동할 겁니다.
즉 하나의 공간 안에서 관객들은 다양한 감각을
체험합니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관객들은
그 안에서 모순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야외 테크를 쓸 수 있어
부분적으로 인조잔디를 깔고 에어컨 실외기를
둘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시공간 안에 펼쳐진
이상한 계절이 실외기 하나로 환원되는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정재희 작가는 다가올 전시의 구성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밝혔다. “저는 작업을 할 때
가능한 담백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는 관객들은 여러 의미를 붙이려 하거나
반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재료로 사용할 때는 그 사물 자체에서 함의를
느낀 경우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도 빛과 소리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독일의 전자제품 매장인 자툰(SATURN)의
매대 위에서 직접 메모리카드가 들어있지 않은
카메라를 만져보았던 경험을 얘기해 주었다.
“자툰(SATURN)에 가보니 메모리카드 없이
카메라가 작동하더라고요. 제조사가 시연용으로
한 장만 찍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그때
카메라의 원래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재
현

주
메
모
리
카
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자툰(SATURN)에서
카메라를 처음 만졌을 땐 카메라의 즉각적인
타격에만 초점이 갔어요. 어둠 속에서 메모리
카드 없이 카메라들이 빛과 소리로 관객들을
슈팅하는 그림이었죠. 이를 실제로 만들면서
카메라들의 급작스러운 소리와 빛이 이전처럼
공격적이지 않고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찰칵’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눈앞이 순간 백지가
되는 현재(present)로요.”

이상한 계절(Strange Season)

“현상적으로 계절과 관련된 전자제품들을
뒤섞어 동시에 작동시키려 한 아이디어는 꽤
오래됐습니다. 올해 미세먼지를 자연재해에서
인재(人災)로 여기는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아이디어를 구현하기에 좋은 때를 만난

것이죠.” 작가는 대학시절 당시의 관심사
때문에 매체미학과 관련된 책들을 의식적으로
읽었다고 한다. 상관은 없지만 아도르노처럼
회의주의자들을 좋아했다고 한다. “작업을,
실존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니 즐겁더라고요.
관념으로만 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더 좋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
힘들고 그게 쌓이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만져야 돼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것, 그리고
그것이 리얼 타임으로 작동할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잡히지 않는 영상엔 손이 잘 안가요.
실제 사물을 가져와 눈앞에서 조우하는 걸
좋아합니다. 조각적인 느낌 있잖아요. 조각은
촉각적이잖아요. 눈앞에서 만질 수 있는 현존감
같은 겁니다. 거기에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죠.”

22

Season -- that is, my expectations and skepticism
about the directing of the exhibition, which was
strange and not ideal enough. The tense conflict
between cold air-conditioners and the excessive
operation of heaters staged as ruins and anti-
anthropocentrism was the idea that should exactly
be pinpointed to be doubted and withdrawn.
Crossing over the Hanyangdoseong City Wall lit
with orange street lamps standing closely in a row,
we went down an alley that led us to Seochon.

Jaewon Chey

Things

23

나는 그렇게 오랜 시간 작가와 카페에서
인터뷰를 했다. 실내 공기가 갑갑해 잠시 걷자고
했다. 그렇게 작가와 걷게 된 동네는 '현저동'으로
불리다 '무악동'으로 편입되고, '옥바라지
골목'으로 불리우다 결국 '경희궁 롯데캐슬'이
된 곳이었다. 높은 경사를 오르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된 도시 정경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계절》 전시에 가졌던 나의 크리티크 즉 충분히
이상(理想)적이지 못하게 이상(異相)한 전시연출,
폐허같이 또는 반인간중심주의로 연출되며
극단적인 온열기의 가동과 차가운 에어컨의
팽팽한 대립 등에 대한 내 기대와 회의야말로
회의되고 철회되어야 할 관념의 포획이 아닌가
생각했다. 주황빛 가로등 사이로 촘촘히 밝힌
한양 도성을 넘어 우리는 서촌으로 향하는 어느
골목으로 내려갔다.

최재원

를물사

24



25







28



29





2019. 11. 19. — 2020. 1. 19.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퀀텀점프 2019 릴레이 2인전

박미라 밤물결

32

QUANTUM JUMP 2019 2 Artists Relay Show

Mira Park The Waves at Night

Nov. 19, 2019 — Jan. 19, 2020
Project Galler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나는 도시의 산책자가 되어 주변을 산책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검은 그림자들을 들추어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타인들과 다른 목적의 산책(‘빈둥거린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작은 틈새의 변화를 감지하고 조사한다. 이러한 태도는 범죄 현장에서 수사요원들이 단서를 수집하는 것과 흡사하다.

도시의 이면을 찾아다니던 나는, 어느 날 사람들의 이해가 얹히고설킨 흥미로운 공간 ‘싱크홀’에 관심을 갖는다. 도시에서 벌어지는 지반 침식 현상인 싱크홀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래빗홀(토끼굴)을 연결해 가상의 이야기를 만든다. 다수의 이해가 얹힌 욕망의 무게로 내려앉은 구멍, 미지의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로서의 구멍, 욕망의 대상들이 모여 사건을 만들어내는 장소로서의 구멍을 상징하는 래빗홀을 통해 동시대에 첨예하게 갈등 중인 재난과 불안을 말한다.

<검은 산책> 시리즈에서는 도시를 산책하던 중 발견하게 된 구멍이 가진 다양한 의미들, 예를 들어 상실감, 욕망, 슬픔, 공포, 의구심, 우울, 관음 등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 그린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들을 구멍이라는 상징과 은유로 표현한다. 각각의 이미지들은 느슨하지만 연결된 서사를 가진다. <언더 더 스킨>에서는 <검은 산책>과 연속하여 도시의 풍경과 그 안에서 느껴지는 개인의 소외된 감정에 주목하지만 사회 안에서 정해진 역할들과 관계 속에서 노출되는 ‘취약성’과 예민함에 조금 더 집중해 작업을 이어 나간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 중인 물질적 표면 제작과 함께 취약성으로 상징되는 표면에 대한 이야기를 잇대어 작업한다.

36

I walk around the city as an urban flâneur and create works that trace and document the dark shadows behind it. My walk may have a different purpose from that of others—“idle ambling” would better explain it—and through it, I sense and explore the changes in the little breaks in the city in which I live. This attitude is not unlike those of investigators who search for evidence at a crime scene.

One day as I looked into the darker aspects of the city, I became interested in sinkholes, fascinating spaces where people’s interests are entangled. I created an imaginary story by linking sinkholes, the collapsing ground of city, to the rabbit hole from *Alice in Wonderland*. The story presents disaster and anxiety in harsh conflicts from the present through the rabbit hole, which represents a hole that collapsed through the weight of desires of many different interests, a hole as a path to an unknown world, and a hole as a place where objects of desire gather to cause incidents.

The Walk in the Dark series imparts various significations of holes—such as emotions of loss, desire, sorrow, terror, doubt, depression, and voyeurism—found while strolling the city through imaginary stories. The hole is a symbol and metaphor for universal emotions we feel while living in this age. Each image is given a loose yet connected narrative. Continuing from *Walk in the Dark* and *Under the Skin* focuses on the cityscape and the alienated emotions of individuals within it, but it pays more attention to forms of vulnerability and sensitivity that are revealed in fixed roles and relations in that society. Furthermore, along with my continuing practice of creating material surfaces, I add narratives about the surfaces which I symbolize as vulnerability.

The Waves at Night highlights the temporality of night, a time when emotional vulnerability and sensitivity are most heightened. The work creates a story through themes of terror, insomnia, absence of light, darkness, and blackness which are intensified at night. Composed of three pieces of hand-drawn animation, the exhibition talks about “walls created by the projection of light” while maintaining narratives that are connected with previous works. Here, I link the forms created by the moving images from a beam

《밤물결》은 감정의 취약성과 예민함이 가장 고조되는 ‘밤’이라는 시간성에 주목한다. 밤이라는 시간에 증폭되는 공포, 불면증, 빛의 부재, 어둠, 암흑, 검은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세 편의 드로잉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작업과 연결된 서사를 가진 채 ‘빛의 투사를 통해 생겨나는 벽’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빔 프로젝터를 통해 투사된 움직이는 이미지로 생겨나는 형태를 최근 연구하고 있는 움직이는 벽화 개념과 링크시켜 보았다.

주로 검은색의 재료를 사용해 평면이나 드로잉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하는데 겹겹이 쌓인 여러 층위의 이야기를 관찰자의 시선으로 파헤친다. 검은색 풍경은 빈 공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많은 의미와 이야기들이 꼭 채워진 공간을 상징한다. 따라서 색을 뺀다는 것은 비워 놓는 것임과 동시에 공간을 채우는 것이기도 하다. 확고한 극단을 내포하고 있는 검은색으로 일상의 이면에 숨겨진 틈을 그려내고 채워나가며 도시의 산책자가 된다.

박미라

My work is a series of hand-drawn animation and drawing that explore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I use black as a color that represent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I use black as a color that represent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I use black as a color that represent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My work is a series of hand-drawn animation and drawing that explore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I use black as a color that represent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I use black as a color that represent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projector with the concept of moving murals that I have recently been researching.

I compose the mostly employing black materials, I compose them into picture planes or hand-drawn animation. The work investigates many layers of stories through the eyes of an observer. A black landscape is an empty space,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symbolizes a space full of many meanings and stories. Therefore, eliminating color is the emptying of and the filling of space at the same time. I become an urban flâneur in drawing and filling the hidden gaps of daily life with black, connoting the extremities.

Mira Park

My work is a series of hand-drawn animation and drawing that explore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I use black as a color that represent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I use black as a color that represent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My work is a series of hand-drawn animation and drawing that explore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I use black as a color that represent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I use black as a color that represent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My work is a series of hand-drawn animation and drawing that explore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I use black as a color that represent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I use black as a color that represents the hidden spaces of the city.

37

최재원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Don't Mow,
Die And Rise
Again!

Jaewon Ch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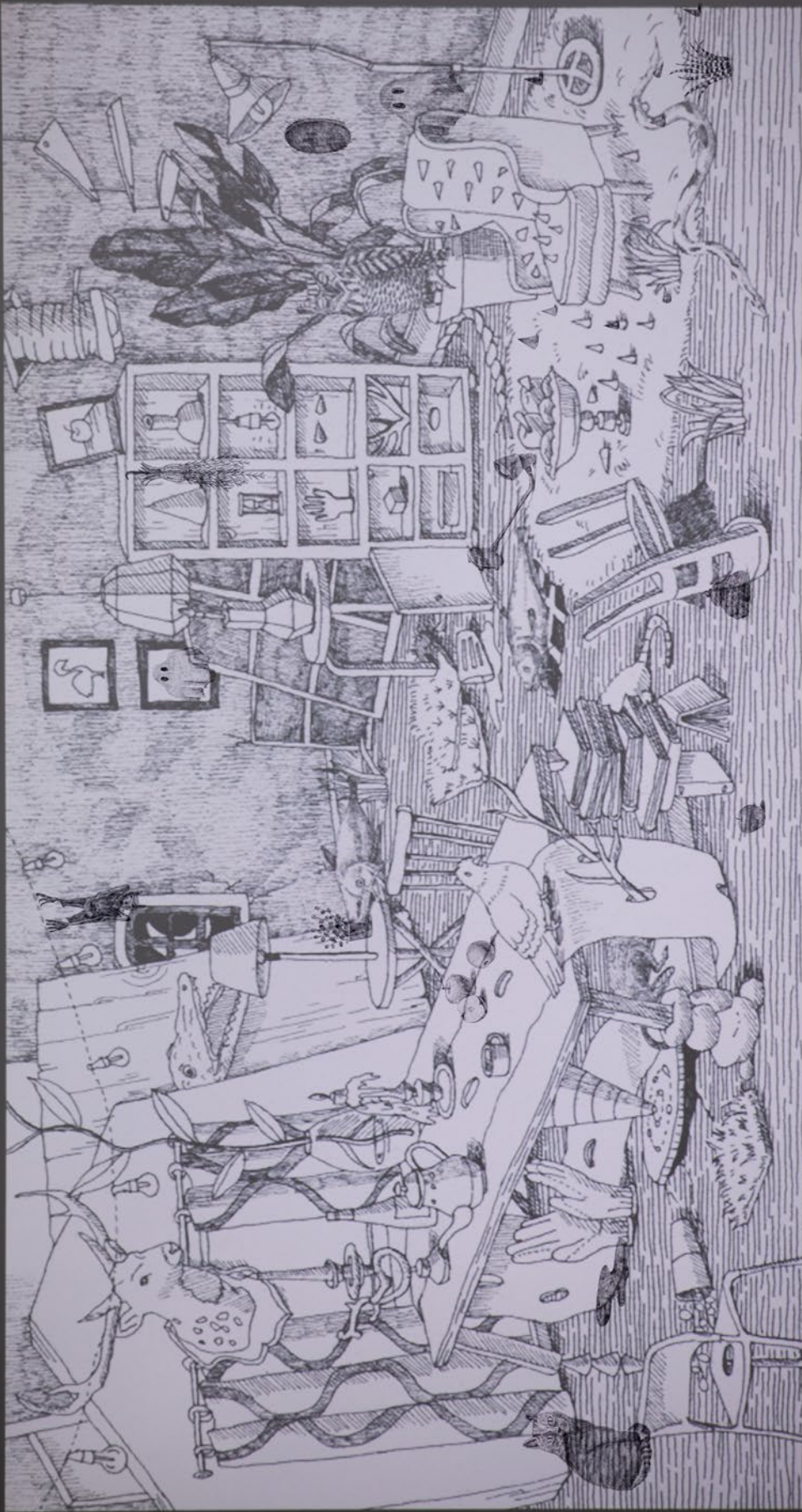


Photo by
Youngha Cho

사진
조영하

첫 만남, 작가와의 만남

박미라 작가의 작업들을 본 것은 오후였다. 한 낮인데도 밤의 사각거리는 소리와 불편하고도 불길하다고도 할 수 있는 불협(不協)의 노이즈가 들리는 듯 했다. 손을 뻗어 잡지 않으면 놓쳐지는 공기가 있다. 훑-하고 사라져 버리고 마는, 체념하듯 무심한 듯 그렇게 걸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다. 내가 부르고 손길을 보내지 않으면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 나에게 정말 중요한데 떠나 버릴 사람, 내 것의 울음인데 그것마저 망각해 버리는 오후, 어쩌면 그런 잔인한 망각된 오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비밀은 불현듯이 던져지거나 찾아오기도 한다. 조화롭고 안온하며 모든 것이 정돈되어 배열된 일상을 살아가기를 욕망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기후와 습도와 변화들로부터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으며 빛의 퇴각으로부터 밤의 사물들도

동요하고 있다.

철저히 인간이 중심에 있는 인식론의 환상은 비인간의 사물들로부터 평평한 지형학(flat ontology)으로의 대질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그 세계로의 연루를 (인식적으로) 추방해 왔는지도 모른다. 박미라 작가는 “《밤물결》은 감정의 취약성과 예민함이 가장 고조되는 ‘밤’이라는 시간성에 주목한다.”고 말한다. 밤이라는 시간은 공간을 전유한다. 밤의 시제가 동요시키고 전복하고 있는 것은 한낮의 광선이라는 거룩한 표상과 관념이라는 “빛이 있으라”로 비춰진 대상화된 것(object)들이다. 그것이 사물들(things)로 점차 창백해지고 자신의 주어진 표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비틀어지면서 신음들과 소음들과 시끄러운 출렁임으로 동요되기 시작하는 징후들이다. 붙잡지 않으면

원재원

열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저녁이라서 명멸하고, 밤처럼 사라져 버리는 그림자 같이 더듬거리며 경계 없듯, 희석되어 버릴지도 모를 밤과 그림자와 어둠과 꿈과 잠

회사후소(繪事後素)

나는 지금 작가의 펜 드로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먼저 바탕을 손질한 후에 채색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회사후소(繪事後素)’는 드로잉(drawing)에 대한 전통적 비유로 인용되기도 하지만 실은 그림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경구이기도 하다. 박미라 작가는 가장 ‘날것’으로서의 스크래치 처럼, 색채와 면적보다는 펜 드로잉에서 세부들의 밀도를 추구한다. 특히 박미라 작가에게 시간과 노동, 밀도가 가진 의도는 무엇일까? 작가의 필법에서 내게 보이는 것은 텍스트로 씌여지는 관념과 상상으로의 영역을

40

My First Meeting with the Artist

It was afternoon when I encountered the works of Mira Park. Even in broad daylight, the crisp sounds of the night and the noise of uncomfortable and ominous cacophony seemed to fall on my ears. Some air escapes us unless we reach out to grasp it. Some persons just disappear, walking away as if resigned and indifferent. A person whom I will never be able to see again if I don't call and stretch out my hand, a person who is so important to me but will soon leave, the afternoon when I even forget about the cry that is my own. Secrets like what manifested that one cruel, oblivious afternoon, letting us know that we are alive, come suddenly at us or are sometimes thrown at us. While desiring to live a harmonious and peaceful life with everything in place and order, I am constantly being agitated by climate, humidity and changes, as well as unsettled objects from the retreat of light at night.

The illusion of anthropocentrism in epistemology may have persistently refused the confrontation

of flat ontology suggested by non-human things and expelled (consciously) the involvement into such a realm. “*The Waves at Night* illuminates the temporality of ‘night,’ when the weakness and sensitivity of emotions rise to the highest peak,” Mira Park said. The time of night appropriates space. What the temporality of night disturbs and subverts is the holy representation of the ray of light in midday and the objectified objects lit up by the idea of “Let there be light.” Gradually, objects turn into pale things, unshackled from assigned representations and twisted, showing symptoms of disturbance with moans, noises and tumultuous waves. If not caught, they might be flickering in the evening, disappearing like a shadow that takes after night. Groping, borderless, and perhaps one-day-will-be-diluted shadow, darkness, dream and sleep.

Drawing From a Blank Slate

At this point, I want to talk about the pen drawing of the artist. The saying “draw from a blank slate(“繪事後素” in Chinese)” is a traditional

Jaewon Chey

Don't Move, Die And Rise Again!

metaphor for drawing, but it can be an aphorism not only for art but for life. Mira Park delves into intensity as details in her pen drawings, rather than colors and surfaces, like scratching at the most “raw thing.” What intentions do time, labor and intensity have especially for Mira Park? What I see in her strokes is the tension in which the ceaseless time of intensity and agitation assuages the realm of idea and imagination written in text. Otherwise, it might be an encounter with a world she gropes for with intention, but in the oblivion of the intention through withdrawal from it. Things at night are given to us by breaking away from day in different entanglement and waves, not by the hierarchy or order of time. Releasing oneself from the restraint and capture of one's mind and reason. That might mean she wants to investigate the symptoms, delicate signs of events and alibis, but not complete stories or messages, trying not to be entrammelled. The artist tracks down the clues of the events that turn upside down and fragmentize the *Poltergeist* but gives up on the investigation of the existences that are escaping and sliding

끊임없는 밀도와 소요의 실천적 시간으로 잠재우는 긴장감이다. 아니 의도 속에서 의도 자체를 침잠하여 그것마저 잊고 더듬어 찾아내려는 세계로의 조우일 수도 있다. 밤의 사물들은 한낮의 위계나 질서가 아닌 다른 얽힘과 출렁임으로 주어져 있다. 정신과 이성의 결박과 포획으로부터 벗어나기. 완결된 이야기나 메시지가 아닌 징후들이나 사건의 낚시, 알리바이는 추궁되지만 인과론에는 결박당하지 않으려는 것인가? 작가는 이 <시끄러운 유령들>이 전복시키고 파편화시키는 사건(events)의 단서들을 추적하지만, 용의선상에서 도피하고 미끄러지는 존재들을 심문하기를 포기한다. 수사는 미궁에 빠진다. 공모에 연루된 용의자의 범위는 좁혀지지 않고 도리어 갈수록 범위는 넓어진다. 작가는 “검은색 풍경은 빈 공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41

from the list of suspects. The investigation is going nowhere. The range of suspects implicated in the conspiracy isn't narrowed down but broadens. “The black landscape is empty space yet at the same time a space filled with lots of meanings and stories. Therefore, working without colors means making room as well as filling the void,” the artist said. Then, is this forensic science that handles urban crime scenes different from that for other cities in daylight?

Hamlet

The ghost of Hamlet's father asks his son to avenge his death and get his country in order. When Hamlet learns that his father was killed by his uncle, he becomes revengeful. He does not know what to do. He must commit murder. With the tremendous burdens of revenge and the restoration of the country on his shoulders, Hamlet exclaims:

“The time is out of joint!...That ever I was born to set it right!”

많은 의미와 이야기들이 꽉 채워진 공간”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색을 뺀다는 것은 비워 놓는 것임과 동시에 공간을 채우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도시 범죄현장에 대한 수사 기법은 다른 한낮의 도시들과 다른 것일까?

햄릿(Hamlet)

아버지의 훈령은 햄릿에게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복수하고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아버지가 숙부에 의해 살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햄릿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는 살인을 해야 한다. 복수와 질서의 회복이라는 엄청난 짐을 어깨에 짊어진 채 햄릿은 다음과 같이 외친다.

“The time is out of joint!”

아! 이런 뒤틀린 세상이라니! (시간이 이음매에서

어긋나 있다.)

“That ever I was born to set it right!”

아, 저주스러운 낭패로다. 그걸 바로잡으려고

내가 태어난 것이라니!

햄릿은 복수의 의도가 들키지 않도록 미친 척하기로 한다. 그러나 미친 척하기로 한 그 자신 조차도 자신이 미친 척하는 건지 정말로 미쳐버렸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워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행동 양태는 그가 유령을 만난 이후부터 쭉 계속된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잠시 그러한 “미치겠어” “정말 돌아 버리겠네”의 광증에서 잠시 이탈되거나 면제되어 이성적이라는 착각에 빠져들고는 한다. 박미라 작가의 <검은 산책>은 그런 도시의 밤 속에서 거룩한

원재원

열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한낮의 빛이 아닌, “공포, 불면증, 빛의 부재, 어둠, 암흑, 검은색”에 대해 발화한다.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말처럼 걷기를 공간에서의 언술행위(enunciation)라고 한다면, 박미라 작가의 산책이란 걷는 사람이 주어진 공간배치(topological) 체계를 전유(appropriate)하는 과정이다. 밤의 걷기란, 구분된 위치들 간의 관계로서, 즉 주어진 체계의 가능성으로가 아닌 다른 가능성들을 만들어 가는 장소의 공간적 실현의 과정이다. 걷기에는 가로지르기, 이리저리 표류하기, 즉흥적인 행위, 구축된 동선으로 고정시킨 가능성들이 있기도 하고 가능성들의 수와 금지의 수가 증대되기도 한다. 박미라 작가는 그렇게 햄릿의 탄식과 빛이 거세된 밤의 사물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유령은 ‘되돌아오는(revenant)’ 존재들이다. 물론 유령들의 시제는 제한적이지만은 않다.

햄릿 왕자만이 유령을 보는 것은 아니다. 유령은 ‘공동 존재’들로 암시된다. 누구나 유령과 마주할 수는 있을 지라도 모두가 유령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다. 우리는 특정한 언술과 표상 뒤에 숨거나 고정된 기표로 자신을 은폐시키고는 한다. 그런데 유령은 무언가 ‘공동체’에 할 말이 있다. 우리들이 공모되어 있는 한낮의 사건들로부터 희생당한 그 유령들이기 때문이다. 유령은 그 공동체에게 죄의 연루를 묻고 있다. 나는 처음부터 박미라 작가가 말하지 않지만 말하고 있는 한낮의 꿈, 오후에 드러진 밤의 그림자, 기괴하지만 우리 자신이기도 한 정체들의 악몽들을 식은 땀 흘리듯이 쫓게 되었고 그것들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성이나 제도 또는 갖가지 이름으로 추방되는 그 모든 시제와 좌표들이 박미라 작가의 작업으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올라버린 느낌을 받았기

42

Hamlet decides to pretend to be mad in the head to conceal his intention of revenge. However, he himself, the one who made the decision, gets so confused to the point that he does not know whether he is really mad or is just pretending to be mad. This pattern continues on after he meets the ghost.

We live with the illusion that we are rational just because we are slightly far away from or exempt from the mad situations causing us to say, “I’m going crazy,” or “This is crazy,” for now. Park’s piece, *A Black Walk*, talks about not the holy daytime light, but rather “fear, insomnia, absence of light, darkness, abyss, and blackness” in the night of the city. If we assume that, as Michel de Certeau said, walking is “a space of enunciation,” to Park, a walk is the process in which the walker appropriates a given topological system. Walking at night is the process of spatial realization of a place that creates relationships between distinct locations, that is, other possibilities than those of a given system. The act of walking

involves traversing, drifting back and forth, other spontaneous acts, possibilities fixed by established movements, and even increases the numbers of possibilities of prohibitions. In this way, the artist faces Hamlet’s lamentation and things at night castrated off light. Poltergeists are “revenant” beings. Of course, the tenseness of poltergeists is not always limited. Hamlet is not the only one who sees poltergeists. Poltergeists are alluded to as “common beings,” Anyone can face ghosts, but not everyone can hear them. We hide ourselves behind certain words and representations or conceal ourselves within fixed signs. But ghosts have something to say to our community because they have been sacrificed from the events of daytime in which we are involved. The poltergeists urge us to take responsibility for our involvement.

The polarity of night and day reminds us of Ouroboros (“οὐροβόρος” in Greek), “a serpent swallows its own tail.” Only one snake, or one attribute, cannot represent both night and day. It takes two snakes: one symbolizing day and

Jaewon Chey

Don’t Move, Die And Rise Again!

the other night. The planets facing each other always have polarity between them and exist in opposing positions of certain characteristics while maintaining a mysterious relationship where they are conditioned to the existence of one another. The ancient Egyptian civilization flourished based on agriculture, so the sun had decisive and keen associations with the lives and goings-on of the people. Therefore, the ancient Egyptians praised the sun in the sky as the supreme god. The path of the sun led to the other mysterious side of the world—the sun that is the highest in the sky, rises above the horizon and traverses the sky during the day until it sets below the horizon in the evening to rest in the other underworld at night. Even at night, the sun keeps going around the world in a half-circle on the other world. In other words, the sun travels across the sky during the day and across the underworld during the night. *The Waves at Night* assumes a world that cannot exist only with the sun under the law of polarity; as the world cannot exist only with the moon, either. It “switches on” the fundamental motif of two as one

and one as two under the condition of each other’s existence, causing the agitation of the night.

Poltergeist

I asked Park about the background of this work. The artist studied light as she continued to work on black. Before the invention of light fixtures, people greatly feared of the night. These hours of horror came back every night. The artist thought about the people of those times who had to face the darkness on a regular basis, not even understanding why it would suddenly become dark. She was interested in such a state of horror and began her work to create stories about the nighttime, when light disappears and darkness falls. The artist herself also often felt scared at night, suffering from insomnia, the absence of light, feelings that seemed insignificant during the day but escalated at night to heighten her anxiety.

During the interview, Park presents an interesting answer as to why the night comes back on a regular basis. Now we believe we know why

43

때문이었다. 국가주의와 법률, 도덕과 이성과 규율과 모든 명령들로부터 소환되기 이전에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는 모든 가이스트(Geist)들의 존재란?

그렇게 나는 자연스럽게 연금술 서적과 검색 결과를 조우하게 된다. 밤과 낮의 양극성은 “꼬리를 삼키는 자”라는 뜻의 우로보로스(ouroboros, 그리스어: οὐροβόρος)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교와 믿음과 거룩한 표상들로 억압받았던 숨겨진 약속. 우로보로스. 한 마리의 뱀, 한 가지의 속성으로는 밤과 낮을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두 마리의 뱀이면 가능하다. 한 마리의 뱀은 낮을, 남은 한 마리의 뱀은 밤을 뜻한다. 서로 마주보는 행성은 항상 쌍수로서의 양극성 표현이 있고 일정한 특성의

대립적인 위치에서 존재하며, 서로가 상대의 존재에 조건하는 신비한 관계라고 한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농업사회를 이루며 번성하였기 때문에 태양은 자신들의 생업과 생명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이고 민감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렇다.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찬양한다. 신기한 비의적 측면도 태양의 길로부터 시작되는데, 가장 높이 떠 있는 태양은 지평선에서 시작해서 낮 동안 천공의 길을 따라 가다가, 밤이 되면 지평선 밑으로 저 쪽의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었다고 한다. 밤이 오면 해는 저쪽 세계에서 반원을 그리며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태양이 낮 동안은 천공을, 밤 동안은 지하를 돌고 있는 것이다. 박미라 작가의 《밤물결》은 양극성의 법칙으로서 태양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세계를 간주하지만, 달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원재현

열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것과 같이 서로의 존재 조건 하에서 돌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둘인 근원적인 모티브에서 <스위치 온(Switch on)>하며 출렁이기 시작한다.

시끄러운 유령들(Poltergeist)

박미라 작가에게 이 작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물었다. 작가는 검은색으로만 작업을 하다 보니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전에 조명 기구들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밤에 공포를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그 무서운 공포의 시간이 매일 밤 그들에게 찾아 왔던 것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 그래서 왜 주기적으로 갑자기 어두워지는 건지 그런 이유도 알 수 없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이다. 작가는 그렇게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지는 그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생각해서 시작을 했다고 한다. 박미라 작가 스스로에게도 여전히 밤이 가끔 그런 무서운 느낌을 줄 때가 있다고 한다. 불면증이라든가 빛의 부재라든가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감정들, 밤이 되면 불안해지고 하는 것들이 작가가 스스로 경험했던 것들이라서 말이다.

인터뷰 중에 작가는 밤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대답을 했다. 지금 우리들은 소위 근대화된 과학에 의해 주기적으로 그 밤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작가는 그렇게 이유도 알 수 없이, 밤이 찾아오는 까닭은 지구가 달의 뒤편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작가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밤이 온다는 과학적 관점 보다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44

night always returns, thanks to the so-called modern sciences. However, the artist explains the phenomenon in a different way, explaining that night falls as the earth passes behind the moon. She focuses on the principles of the lunar eclipse, where the moon is covered by the shadow of the earth, rather than the scientific view seeing that night occurs because of the rotation of the earth. For me, it was meaningful to sense the artist's profoundly astrological perspective and her cosmic point of view that was based on her own imagination.

Horror Movies

Psychic, slasher, and zombie movies. As I said to her that her work reminds me of Borges as it whirls together time and space and portrays the extension of events as tree branches, she told me that she likes horror films, especially psychic, slasher, and zombie movies. Horror films always take place at night, and she, interested in the nighttime, began to create works in the form of animated drawings to document the stories of the

night. “*Switch on* expresses things like my feelings and emotions changing over time during the night with floating or excited images. *Poltergeist* features images that descend, fall down, and sink incessantly,” she explained. She titled this work, *Poltergeist*,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 term referring to ghosts making noise or causing things to move. The artist has not yet experienced the phenomenon herself, but she believes in it. Her animated drawing *Switch on* seems to refer to the ambiguity of the word “switch-on,” which implies both the projection of things agitated and moving in the darkness of night and the act of turning on the switch of a light or something else. If a brightly lit room is the landscape of reality to the artist, then the alibi of its absence at the scene is established, while that reality looks rather lacklustre and even pale. However, it is the darkness of the night that causes cracks in the solid reality, which consists of things that hold their breath and wait for the darkness to come. The nocturnal beings that begin their activities as darkness falls are those that are not noticed or are rejected in reality.

Jaewon Chey

Don't Move, Die And Rise Again!

Moving Images

Switch on, which the artist describes as a “mural,” is a series of drawings created on the wall. “I’ve used this technique for a long time, since I thought I could convey more messages by overlapping layers of images, rather than by simply projecting a single layer of images directly onto a white wall,” she explains. The objects drawn on the wall reveal themselves when the projector is turned off. To list them in detail, they include a dry bouquet, an apple, a small puddle of water, a perhaps-broken stand that is sprawled on the floor. *Switch on* has fewer vertical or horizontal movements or changes in the backgrounds compared to the other two works, *Poltergeist* and *Speechless*, featured in *The Waves at Night* exhibition. Thus, the artist thought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present *Switch on* together with murals, resulting in the addition of murals to this piece. The murals, drawn as if projecting original drawings on paper with a pen, seem to float in the air whenever the projector is turned off, shyly revealing their flesh in unexpected coordinates. The artist humbly said that she chose

the medium of animated drawing because she wanted to show multiple layers in her drawings. However, what was interesting to me was the signs of animism in her work that deliberately mixes her spiritual and physical worlds, as if infusing a soul together with objects. The artist may want to say that reality can sometimes be quite unrealistic, implying entrance into the dark obscura rather than into a bright room to search for a space other than the world, leading to the divine light and human-centered rationalism. The artist may also want to show a world in which things and humans compose a horizontal, flat topography. An image is inverted on the focal point of the screen, but only because it is reflected light from the object, which clearly proves that the object existed in front of the camera lens. In this way, the methodology is borrowed in a more imaginative, poetic way than in fantasy literature. It seems rather like an attempt to uncover the imagination of the world of non-human objects without humans, and the propensities that may be a bit rebellious and horrifying, but have remained latent within them. At that moment, the

45

월식(月蝕)에 대해 설명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점성술에 가까운 관점과 상상력을 취하고 있는 작가의 우주를 감각하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하게 느껴졌다.

공포 영화

심령(心靈), 슬래셔(slasher), 좀비(zombie). 시간과 공간이 굽이치며 사건들이 흐름의 가지를 벌려 나간다는 점에서 내가 보르헤스가 생각난다고 하자, 작가는 공포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다. 특히 심령, 슬래셔, 좀비물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공포 영화는 그 배경이 항상 밤이고, 그런 밤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어 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작가는 “<스위치 온>은 밤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기분 상태 같은 것들을 부유하거나 기분이 붕 뜬

상태의 이미지들로 표현을 했고, <시끄러운 유령들>은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하며 한없이 가라앉는 그런 이미지들을 표현한 작업입니다.”라고 말했다. 시끄러운 유령들이나 사물들이 움직이며 소리를 내는 현상이라서 ‘폴터가이스트’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작가는 밤에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했던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경험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미라 작가의 드로잉 애니메이션 작업인 <스위치 온>은 마치 밤의 어둠 속에서 동요하듯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프로젝션 된다는 의미에서의 switch-on과 전등 따위의 스위치를 켜다라는 의미의 switch-off/on이 가진 중의성을 의도하고 있는 것 같다. 작가에게 현실의 풍경이 전등 따위가 켜진 밝은 방의 모습이라 한다면 현장 부재 증명의 알리바이는 성립되지만 그 현실은 오히려 윤기가 없고 창백해 보이기까지

원재현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하다. 그러나 숨을 죽이고 어둠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물들로 구성된 고체적 현실이 균열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은 밤의 어두움이다. 그 틈을 타 활동을 시작하는 야행성 존재들은 현실에서는 주목되지 않거나 배척되고 있는 사물들인 것이다.

무빙 이미지

“벽화 작업”이라고 작가가 표현하는 <스위치 온>은 벽에 따로 드로잉을 한 작업이다. “영상이 하얀 벽면에 프로젝션 되는 것 보다 레이어가 겹쳐지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전부터 사용해 온 방법”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프로젝션이 꺼졌을 때 벽에 그려진 사물들이 드러났는데 굳이 그 사물들을 말로 옮기자면 마른 꽃다발, 사과 하나, 작은 물 웅덩이, 나뭇구는 망가진 스탠드 등이었다는

것이다. 이번 《밤물결》 전시에서 보여준 총 세 개의 작업 중 <시끄러운 유령들>과 <삼키는 마음>보다 좌우나 상하로 움직임과 배경의 화면 전환이 없는 작업인 <스위치 온>이 벽화랑 같이 들어갔을 때 효과적인 것 같아 이 작업에 벽화를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 종이에 펜으로 그려진 원화가 프로젝션되며 그려진 벽화는 프로젝션이 꺼질 때마다 전혀 예기치 않은 좌표로 그려진 부끄러운 속살이 드러나듯 공중에 부유하는 듯 보였다. 작가는 자신의 그림 안에서 다양한 레이어를 보여주고 싶어서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를 선택했던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게 흥미로운 것은 사물들에 마치 정령의 기운을 불어넣듯, 자기의 심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고의적으로 혼동시키고 있는 애니미즘(animism)적 징후들이었다. 작가는 어쩌면 현실이 더욱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46

light, the movements, and the blackouts work closely together. I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subject and the object that is to be dismantled, together with the scenarios of light interpreted by the dictatorial human subject.

Technically speaking, the background parts and the objects to which motions are given were drawn separately. The background drawn in a 16:9 Full HD format, the images moving like ants, and the layers of images drawn on the walls of the exhibition hall were originally created in separate ways. The layers of such drawings acquire temporality as they move, and the resulting optical illusions lead the audiences to wonder and imagine which part was drawn to create such movements. The original properties of each object are converted to other sensory properties through technical intervention and the animation effects.

About Being Weird

The Metamorphosis, a novel written by Franz Kafka begins as follows. “One morning, when

Gregor Samsa woke from troubled dreams, he found himself transformed in his bed into a horrible vermin.” The oldest Asian compilation of oddities and mysteries *Shan Hai Jing*(山海經) The Classic of Mountains and Seas was annotated by Guo Pu from the Eastern Jin dynasty who wrote as follows in the preface:

“Things that are considered ‘weird’ in the world do not know they are weird, and things that are deemed strange in the world do not know they are not strange either. Why is it? Things are weird not because of themselves, but become weird when they meet us. The weirdness lies in ourselves, and not in them. Therefore, the barbarians of the north, seeing cloth, doubt if it is truly made from hemp, and the people from Yue are surprised to see how fuzzy blankets are. It is because we usually only believe in what we have seen and find strange what is unfamiliar to us.”

In German, the word “poltergeist” is a combination of “poltern” (to produce loud noises; to knock

Jaewon Chey

Don't Move, Die And Rise Again!

on something; to rattle or to make unknown sounds) and “Leben” (breath or virility). It refers to phenomena wherein strange sounds and screams catch the ears out of nowhere and things move and get destroyed on their own. Park’s moving images are not used only to achieve the ritualistic effects on the audience through such eerie phenomena of poltergeists. Hiding inside, holding your breath, unconscious but greater than conscious senses sent to daytime, unuttered but pre-uttered words, agitation from motionless but ceaselessly clattering and fracturing anxiety, secrets of the day when you are extremely unstable but not one recognizes or deems it negligible. To wrap up, I would like to share a quote from *Frankenstein* by Mary Shelley and Mira Park’s Note.

“Accursed creator! Why did you form a monster so hideous that even you turned from me in disgust? God, in pity, made man beautiful and alluring, after his own image; but my form is a filthy type of yours, more horrid even from the very resemblance. Satan had his companions, fellow devils, to admire

and encourage him, but I am alone and abhorred.”

Quotations from the Artist's Note

Hollow holes of fog
Black and blunt trees
Long darkness
A transmission tower
Embankments
Glass walls
Brick walls
Frozen in black
Dim lights of indoor lamps
A black bird/ a raven
Human-faced
Black leaves
Black and skinny trees
A black coat
A dog that has lost its strength and fur
Clouds
A dead heart
Space where things are turned upside down
Folded shadows
The back side of a person standing alone

47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르네상스는
어쩌면 인간 문명의 진보를 통한 거룩한
빛과 이성주의를 통한 문명의 인도가 아닌
흑사병이라는 어두운 방을 통한 지평이
아니었을까? 다른 공간을 찾기 위해 밝은 방이
아닌 어두운 움스큐라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 작가는 사물들과 인간들이 수평적으로
평평하고 동등해지는 지형학으로 구성된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움스큐라를 통해
맷힌 핀트 글라스에 이미지는 거꾸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분명 카메라 렌즈 앞의 대상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이다. 그렇게 방법론은 환상 문학보다
상상적인 시적 방식으로 차용된다. 차라리
인간을 배제한 비인간 사물들의 세계들로의
상상력과, 약간은 불온하고 공포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사물들에 잠재하고 있던 성향들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때
빛과 움직임과 암막들은 긴밀하게 공조된다.
해체되는 것은 인간 주체와 객체의 관계이자,
인간이라는 독점적 주체가 해석하는 빛의
시나리오를 일지도 모른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배경이 되는 부분과
움직임이 주어지는 사물들은 따로 그려졌다.
이렇게 16:9 풀HD화면 포맷으로 그려진 배경과,
움직이는 개미와도 같은 것들과, 실제 전시장의
벽면에 그려진 사물의 레이어는 원래 분리되어
작업된 것이다. 그러한 드로잉들의 레이어가
무빙으로 시간성을 가지게 되며 그것으로 인한
착시는, 관객들에게 어떤 부분이 움직임을
주기 위해 그려졌을지 더 호기심을 자극하며
상상하게 한다. 각각의 개체들이 가지는
실재속성은 기술적 개입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른 감각속성으로 전환된다.

괴상하다는 것

프란츠 카프카는 그의 작업 『변신』에서 다음과
같은 첫 문단으로 시작하고 있다.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잠자는 자신이 흉측스런 벌레로 변해버린 것을
깨달았다”고 말이다. 동양 최고의 기서(奇書)이자
박물지(博物志)로 불리는 『산해경(山海經)』
동진(東晉)의 곽박(郭璞)이 주석을 달았고 다음과
같이 서문에 쓰고 있다.

“세상에서 이른바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그
이상한 것을 알지 못하며, 세상에서 이른바
괴상하지 않다고 하는 것도 그 괴상하지 아니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사물은 스스로 괴상한 것이 아니라 나를 기다린

후에 괴상해진다. 괴상한 것은 과연 자신에게
있는 것이요, 사물이 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북방의 오랑캐는 옷 짓는 베를 보고
삼씨인가 의심하고, 월(越)나라 사람들은 담요를
보고 솜털이라고 놀란다. 대개 그 익히 보아온
것을 믿고 그 드물게 듣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독일어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 “노크하다”,
“덜커덩 소리를 내다”, “정체 모를 소리가
나다”라는 뜻의 폴터른(poltern)과 생명(Leben),
호흡, 영기를 뜻하는 가이스트(Geist,
der Geist는 ‘유령’의 의미)가 결합된
폴터가이스트(poltergeist)라는 말이 있다. 이유
없이 이상한 소리나 비명이 들리거나 사물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작가의 무빙 이미지는 이러한 폴터가이스트의

열지마, 죽지마, 부활할거야

원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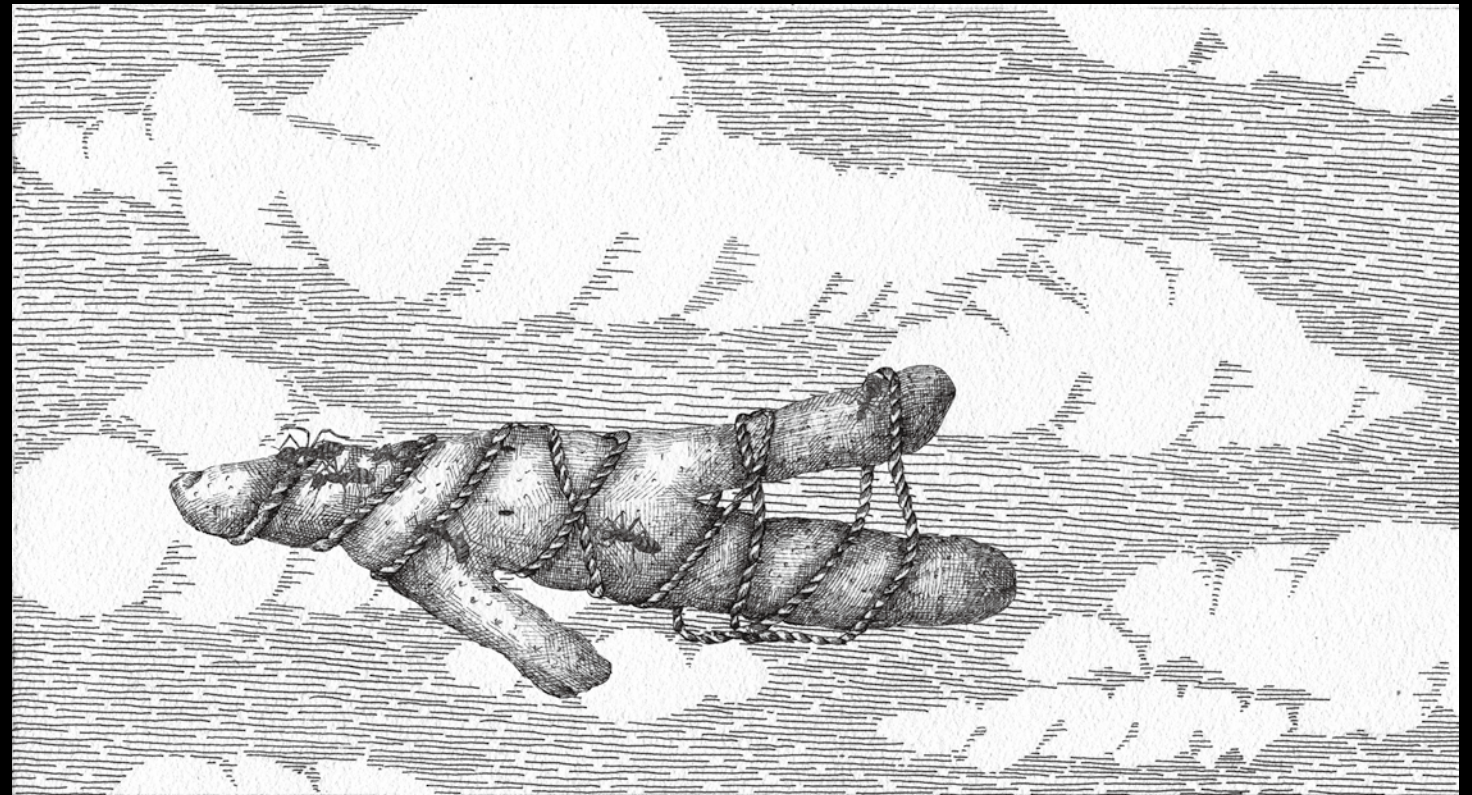
40

A fragmented body
Black smoke from a chimney
A person who is crouching down
A person with a slumped upper body
A bed
Straightened legs
People weeping and covering their faces
A person with only muscles
A grave covered with flowers
Candle drippings
Curtains
Insects and jump rope
Touch (the surface of) water → waves
A person with a hood on has no face
A black-eyed rabbit
A person or an animal with wires around their body
A person sewing
All shapes are melting
Apples and all things are melting
A goldfish in a fishbowl thrusts its mouth above the surface

*A composition in the style of a theater stage/

삼키는 마음 (2019)
드로잉 애니메이션
1분 31초
스틸 컷

Speechless (2019)
Drawing Animation
1min. 31sec.
Still Cut



49

괴기스러운 현상을 통해 관객들에게 제의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안으로 숨고, 참고 있는 숨이지만, 낮으로 보내는 의식되지 않았지만 의식보다도 더 큰 감각, 발화되지 않았지만 발화되기 이전의 언어들, 움직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덜컹거리고 균열을 일으키는 불안으로부터의 동요, 지극히 동요하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그런 대낮의 비밀들,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과 작가의 노트를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저주받은 창조자여, 왜 당신은 스스로도 역겨워 고개를 돌릴 만큼 소름끼치는 괴물을 만들었는가? 신은 인간을 가엾게 여겨,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본떠 아름답고 매혹적으로

만들었건만, 내 모습은 추악한 당신의 모습을 빼닮았기에 더욱 소름끼친다. 사탄에게는 칭찬해주고 용기를 줄 친구, 동료 악마들이라도 있지만, 나는 외톨이고 증오의 대상이로다!”

작가의 아이디어 노트로부터 인용

안개의 빈구멍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긴 어둠
송전탑
방죽
유리 담장
벽돌 담장
검게 얼어붙은
실내등의 어두운 불빛들
검은 한마리 새 /까마귀
사람의 얼굴을 한

검은 잎
검고 마른 나무
검은 외투
힘과 털이 빠진 개
구름들
죽은 심장
사물들이 뒤집어져 있는 공간
접혀진 그림자
홀로 서 있는 뒷모습
조각난 몸
굴뚝의 검은 연기
쭈구려 앓은 사람
상체를 수구린 사람
침대
다리를 쭉 펴고
얼굴을 가린 채 우는 사람들
근육만 있는 사람

꽃으로 된 무덤
춥
커튼
벌레 줄넘기
물에(수면에) 손을 댄다 → 파장
후드 입은 사람 안에 얼굴이 없다
검은 눈의 토끼
몸에 철사가 감긴 사람이나 동물
바느질하는 사람
모든 형체들이 녹아내림
사과와 모든 물건들이 녹아내림
어항 속 금붕어가 수면 위로 입을 내밀다

*연극 무대 형식의 구도, 모든 사물이
조형적으로 만들어진 설정*
*점점 흐려지는 것, 점점 진해지는 것, 초점의
변화를 가지는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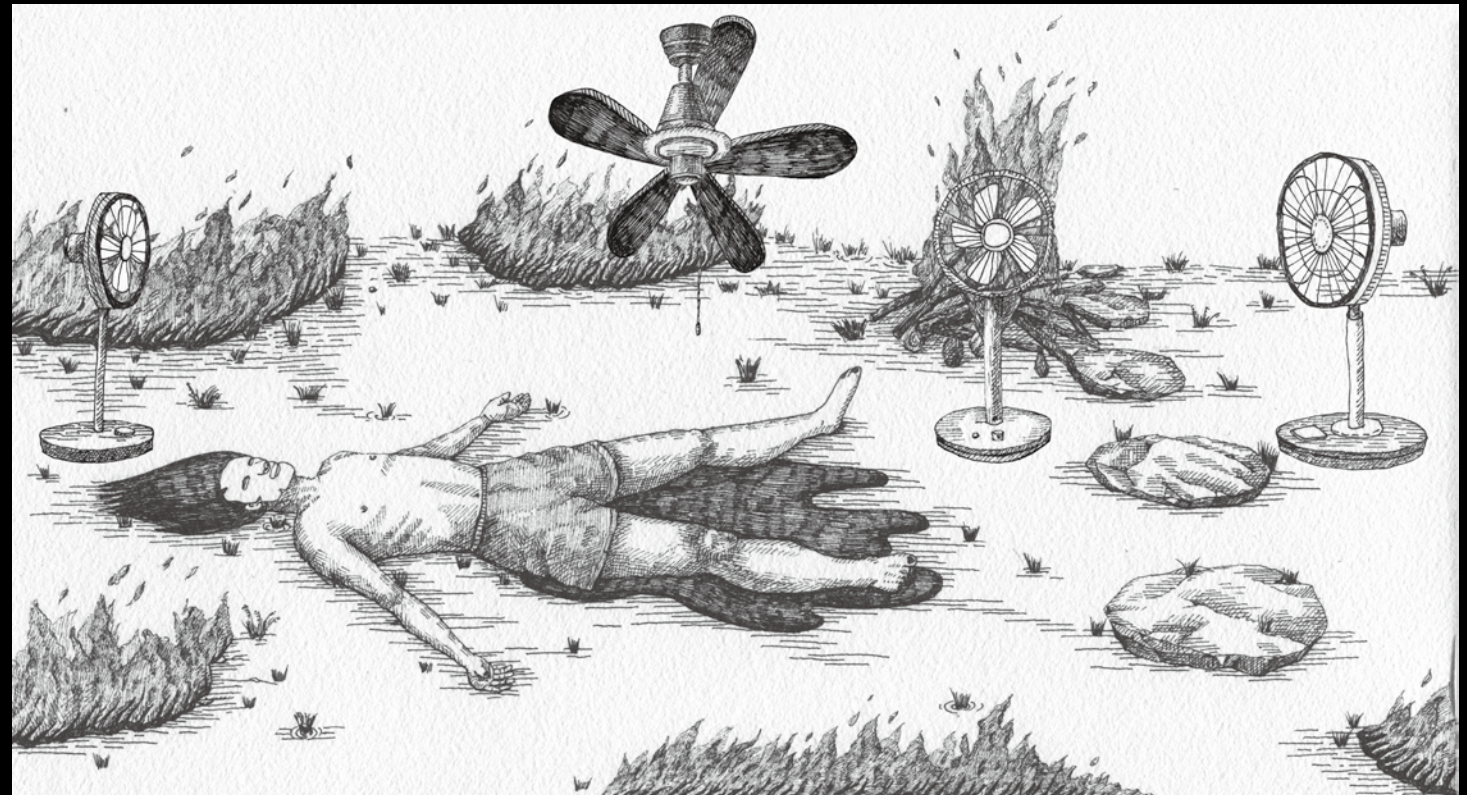
50

setting where all things have figurative forms*
Setting where things fade out and darken, and changes in focus
Repetitive sounds
Setting where things melt and disappear
Setting where the screen vertically enlarges and reduces as an opening and closing eyelid
The Waves at Night

Insomnia
Light
Sleepwalking
Tickling feelings
Feelings of bugs crawling (formication)
Constant sound (ex. clock ticking)
Movement of a pendulum
Sheep
Light twinkling from afar
Noise between floors
Night when colors fade away
Rising moon and elevating emotions
Blinking eyes
Bugs crawling out of the eyes

삼키는 마음 (2019)
드로잉 애니메이션
1분 31초
스틸 컷

Speechless (2019)
Drawing Animation
1min. 31sec.
Still Cut



51

반복되는 소리들

녹아내려서 다 사라져버리는 설정

*눈꺼풀의 여닫힘처럼 화면이 위아래로

벌어지는 설정*

밤물결

불면증

빛

몽유병

간지러운 느낌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일정한 소리 ex) 시계가 똑딱

시계추의 움직임

양

멀리서 빛이 깜빡거림

층간 소음

색이 사라지는 밤

달이 차오르고 감정이 차고

눈을 깜빡거림

눈에서 벌레가 기어나옴

물 떨어지는 소리 asmr

불안함

초조함 밤의 반복적인

웁웁웁웁 반복적인 움직임

○원형 놀이기구 또는 날아다니는 벌의

8.8

옆구리가 터진사람 요가동작

삼키는 마음 (2019)
드로잉 애니메이션
1분 31초
스틸 컷

Speechless (2019)
Drawing Animation
1min. 31sec.
Still Cut



52

ASMR: sound of water dripping

Anxiety

Nervousness repeatedly felt at night

Repetitive moves with a buzzing s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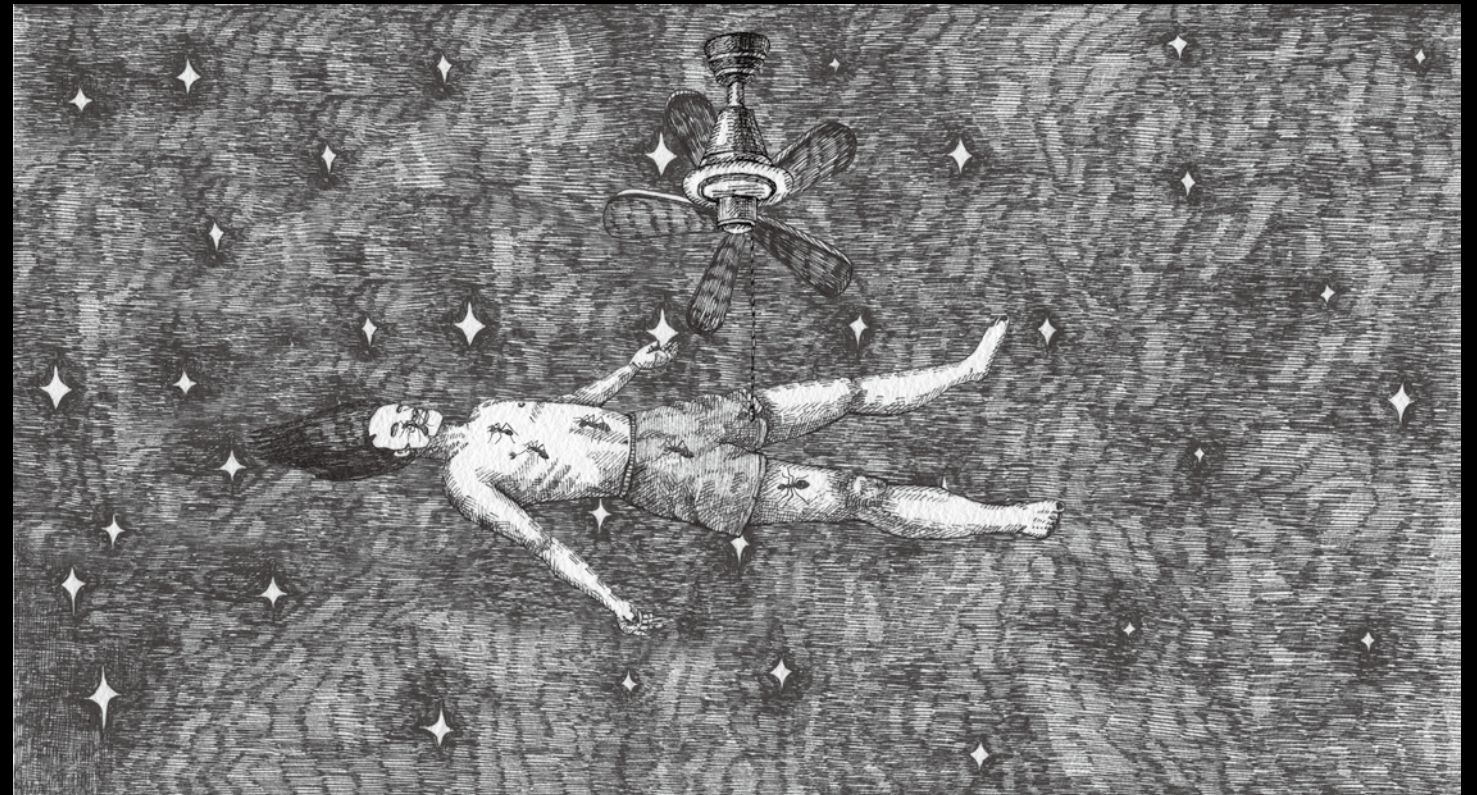
○ of a circular amusement park ride or a flying
bee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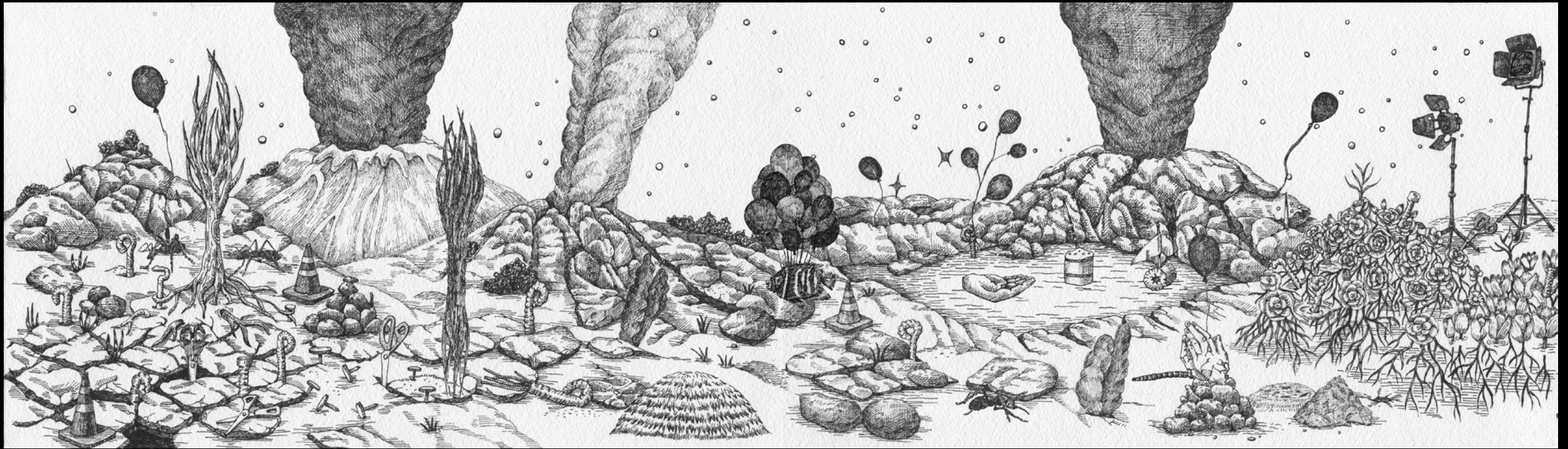
A yoga pose—a person with his/her side that has
popped open

삼키는 마음 (2019)
드로잉 애니메이션
1분 31초
스틸 컷

Speechless (2019)
Drawing Animation
1min. 31sec.
Still Cut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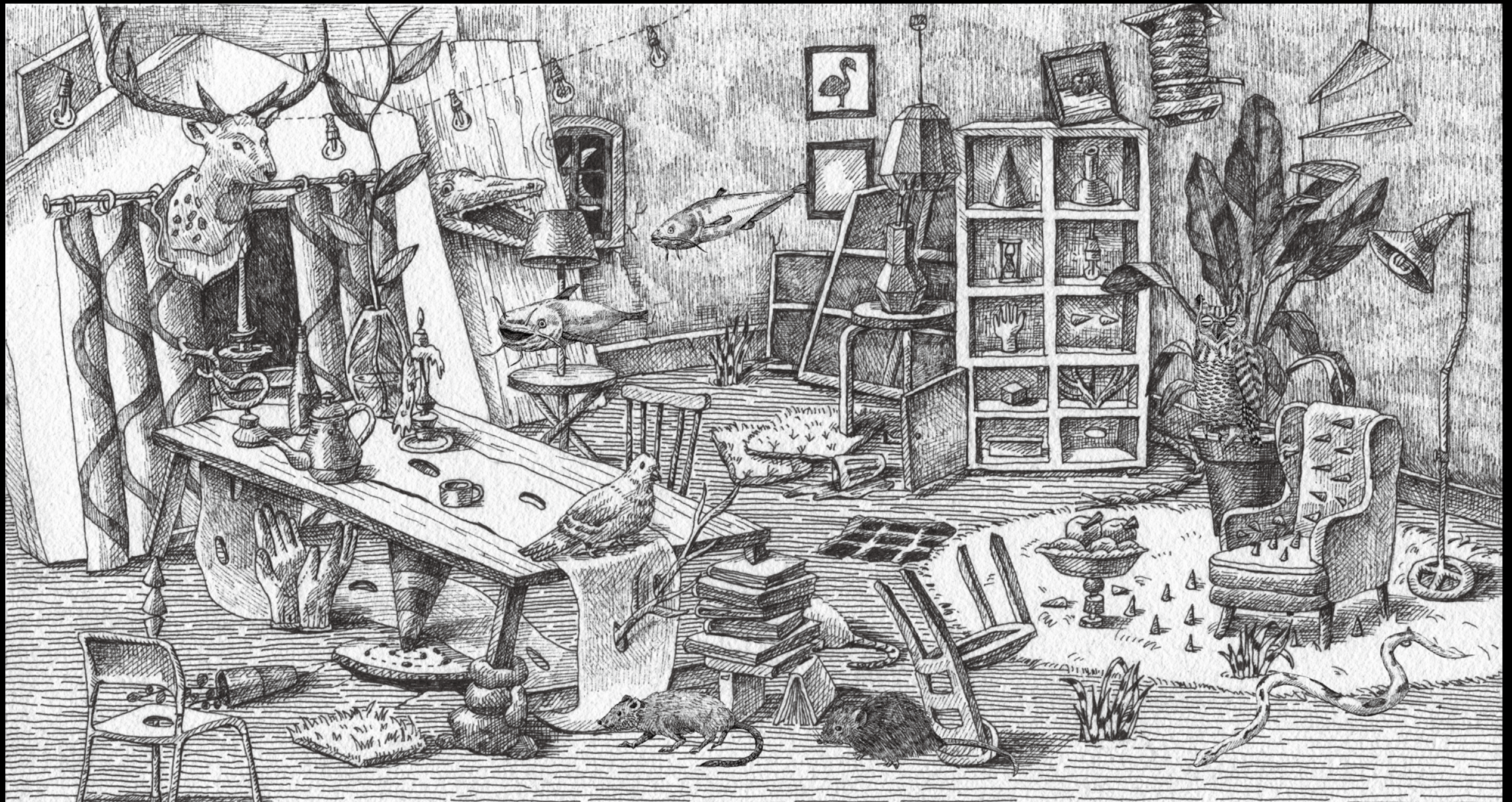


시끄러운 유령들 (2019)
드로잉 애니메이션
2분 26초
스틸 컷

Poltergeist (2019)
Drawing Animation
2min. 26sec.
Still Cut

55





스위치 온 (2019)
종이에 펜
16×30 cm

Switch on (2019)
Pen on Paper
16×30 cm

정재희 Jaehee Jung (b. 1982)	의식주, 서울
<u>학력</u> 2016 베를린 예술대학 비주얼커뮤니케이션(Prof. Joachim Sauter, 뉴미디어 전공) 석사 졸업	· K'ARTS 창작스튜디오 2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K'ARTS 갤러리, 서울
2013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대학 순수미술(Prof. Ulrich Eller) 마이스터술러 졸업	2016 · Lab.30 - Klang Kunst Experimente, Kulturhaus Abraxas, 아우크스부르크, 독일 · ArchiMEDIAL, Weyde, 베를린, 독일 · GENERATE!° lab, Shedhalle Tübingen, 튀빙겐, 독일
2012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대학 순수미술(Prof. Ulrich Eller) 디플롬 졸업	2012 Klang im Raum, HBK Braunschweig, 브라운슈바이크, 독일
2008 중앙대학교 조소학과 졸업	2008 · 미디어 스페이스 81-23번지 프로젝트, 서울 · 타래, 큐브스페이스, 서울 · 신진조각가전, 김종영미술관, 서울
<u>개인전</u> 2019 퀀텀점프 릴레이 2인전: 이상한 계절,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안산	<u>레지던시</u> 2019 경기창작센터, 경기문화재단, 안산
2018 스마트한 신세계, 더레퍼런스, 서울	2017 K'ARTS 창작스튜디오,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
2017 스마트하지 않은 사물, 아웃사이트, 서울	<u>수상 및 선정</u> 2019 경기창작센터-경기도미술관 퀀텀점프 릴레이 2인전 작가 선정, 안산
2016 일상의 소리단위, 갤러리 정미소, 서울	2018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서울
2013 Raum 207,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대학, 브라운슈바이크, 독일	2017 서울문화재단 최초예술지원, 서울
<u>단체전</u> 2020 미니미니미니의 황금: 돌, 공간 황금향, 서울	2016 갤러리 정미소 전시 지원작가 선정, 서울
2019 · 유령결음, 경기창작센터, 안산 · 미디어의 장,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 수상한 아침, 경기창작센터, 안산	2008 김종영미술관 신진조각가 선정, 서울
2018 · 마사코 여사의 의심: 줄, 예술공간	

작가 소개

Artist Biography

<u>Education</u> 2016 MA, Visual Communication(New Media with Prof. Joachim Sauter), Berlin University of the Arts, Berlin, Germany	Korea · Mysterious Morning,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2013 Meisterschüler in Fine Arts(Sound Art with Prof. Ulrich Eller), Braunschweig University of Art, Braunschweig, Germany	2018 · Mrs. Masako's Doubt: Rope, The Necessaries, Seoul, Korea · The 2nd Annual K'ARTS Studio Exhibition, K'ARTS Gallery, Seoul, Korea
2012 Diplom in Fine Arts(Sound Art with Prof. Ulrich Eller), Braunschweig University of Art, Braunschweig, Germany	2016 · Lab.30 - Klang Kunst Experimente, Kulturhaus Abraxas, Augsburg, Germany · ArchiMEDIAL, Weyde, Berlin, Germany · GENERATE!° lab, Shedhalle Tübingen, Tübingen, Germany
2008 BFA, Sculptur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2 Klang im Raum, HBK Braunschweig, Braunschweig, Germany
<u>Solo Exhibitions</u> 2019 Strange Season, Project Galler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2008 · Media Space Project 81-23, Seoul, Korea · Tarae, Cube Space, Seoul, Korea · Young Sculptors Exhibition, Kim Chong Yung Museum, Seoul, Korea
2018 Smart New World, The Reference, Seoul, Korea	<u>Residencies</u> 2019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san, Korea
2017 Unsmart Objects, Outsight, Seoul, Korea	2017 K'ARTS Studi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2016 Everyday Sound Units, Gallery Jungmiso, Seoul, Korea	<u>Awards and Grants</u> 2019 Quantum Jump,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Korea
2013 Raum 207, HBK Braunschweig, Braunschweig, Germany	2018 The First Arts Suppor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Korea
<u>Group Exhibitions</u> 2020 Miniminimini's Gold: Stones, Hwangumhyang, Seoul, Korea	2017 The First Arts Suppor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Korea
2019 · The Haunted Walk,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 Media Field,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Seoul,	

박미라 Mira Park (b. 1982)	아람미술관, 고양	2018
학력	· 코리아 투모로우 2013,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MEET 프로젝트 선정
2006	· Verbal and Non-Verbal, 키미아트, 서울	2015
경원대학교, 회화와 학사 졸업	· 프레 드로잉 비엔날레 공모전_드로잉, 생각의 시작, 갤러리 화이트 블록, 파주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 지원사업 시각예술
개인전	2012	2010
2020	· 고군분투,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 아르코미술관 신진작가 비평 워크숍
검은 산책, 에이라운지 갤러리, 서울	· 유산의 발전, 금천아트캠프, 서울	· 월간 아트인컬처 동방의 요괴들 선정
2019	· Brand New 2012, UNC 갤러리, 서울	· GYA project 2010 경기 지역 젊은 예술가 발굴 프로젝트,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퀀텀점프 릴레이 2인전: 밤물결,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안산	2011	
2015	21세기 유목민을 위한 집, 금천구청, 서울	
래빗홀, 북노마드 a.space, 서울	2010	
2010	· 석수동네傳-석수예술展,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안양	
Grey Eyes,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비주얼아트센터 보다, 서울	· 동방의 요괴들 선정작가展, 두산갤러리, 서울	
2008	· OVERTURE 1: DRAWING, Open Submission Exhibition 2010, PKM 갤러리, Bartleby Bickle & Meursault, 서울	
개인사 수집, 대안공간 미끌, 서울	· YMCA&YWCA, 갤러리 이마주, 서울	
단체전	2009	
2019	· 기침: 起枕 Wake up, 보충대리공간 스톤앤워터, 안양	
· 새로운 세상을 위하여, GS 강서타워, 서울	· 시사화&리뷰, 대안공간 팀프리뷰, 서울	
· 순환하는 밤, 경기창작센터, 안산		
· 비밀없는 스피크스, 금나래아트홀, 서울		
· 수상한 아침, 경기창작센터, 안산		
2018		
·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 2018 결과전시 #1: 발화, GS 강서타워, 서울	레지던시	
· 색칠놀이, 문래예술공장 M30, 서울	2019 — 2020	
· 경기천년 도큐페스타: 경기 아카이브_지금,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경기창작센터, 안산	
· 키미아트 개관 15주년기념전: The Next Big Movement, 키미아트, 서울	2011 — 2012	
2014	금천아트캠프, 서울	
· 쇼윈도우 프로젝트_도시의 산책자, 7 1/2_라운드어바웃, 서울	수상 및 선정	
· 3인의 목격자, 신한갤러리 역삼, 서울	2019	
2013	·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퀀텀점프 릴레이 2인전 작가 선정	
· 신화와 전설, 고양아람누리	· 서울문화재단 예술작품 지원사업 시각예술	
	·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MEET 프로젝트 선정	

Education	2006	2019	2018
	BFA, Painting,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Korea	The Waves at Night, Project Galler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MEET 2018: Mullae Value #1, GS Gangseo Tower, Seoul, Korea
Solo Exhibitions	2020	2015	2019
	Walk in the Dark, A-Lounge Gallery, Seoul, Korea	Personal History Collection, Alternative Space Miccle, Seoul, Korea	MEET 2018: Mullae Value #1, GS Gangseo Tower, Seoul, Korea
		2010	2018
		Grey Eyes, Supplement Space Stone & Water, Anyang, Korea	· Chromaticity, Mullae Art Factory M30, Seoul, Korea
			· Gyeonggi Archive_Now, Sangsang Campus, Suwon, Korea
			· The Next Big Movement, Kimi ART, Seoul, Korea
			2014
			· Show Window Project: Being A Flâneur, 7 1/20, Round About, Seoul, Korea
			· Three Witnesses, Shinhan Gallery Yeoksam, Seoul, Korea
			2013
			· 신화와 전설, 고양아람누리

Residencies	2019 — 2020	2011 — 2012	2018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Geumcheon Art Camp, Seoul, Korea	· MEET 2018: Mullae Value #1, GS Gangseo Tower, Seoul, Korea
Awards and Grants	2019	· Quantum Jump,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Korea	· Chromaticity, Mullae Art Factory M30, Seoul, Korea
	· Artist Support Program,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Korea	· MEET projec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Korea	· Gyeonggi Archive_Now, Sangsang Campus, Suwon, Korea
			· The Next Big Movement, Kimi ART, Seoul, Korea
			2014
			· Show Window Project: Being A Flâneur, 7 1/20, Round About, Seoul, Korea
			· Three Witnesses, Shinhan Gallery Yeoksam, Seoul, Korea
			2013
			· 신화와 전설, 고양아람누리

Education	2006	2019	2018
	BFA, Painting, Kyungwon University, Seongnam, Korea	The Waves at Night, Project Galler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nsan, Korea	MEET 2018: Mullae Value #1, GS Gangseo Tower, Seoul, Korea
Solo Exhibitions	2020	2015	2019
	Walk in the Dark, A-Lounge Gallery, Seoul, Korea	Personal History Collection, Alternative Space Miccle, Seoul, Korea	MEET 2018: Mullae Value #1, GS Gangseo Tower, Seoul, Korea
		2010	2018
		Grey Eyes, Supplement Space Stone & Water, Anyang, Korea	· Chromaticity, Mullae Art Factory M30, Seoul, Korea
			· Gyeonggi Archive_Now, Sangsang Campus, Suwon, Korea
			· The Next Big Movement, Kimi ART, Seoul, Korea
			2014
			· Show Window Project: Being A Flâneur, 7 1/20, Round About, Seoul, Korea
			· Three Witnesses, Shinhan Gallery Yeoksam, Seoul, Korea
			2013
			· 신화와 전설, 고양아람누리

Residencies	2019 — 2020	2011 — 2012	2018
	Gyeonggi Creation Center, Ansan, Korea	Geumcheon Art Camp, Seoul, Korea	MEET projec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Korea
Awards and Grants	2019	· Quantum Jump,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Korea	· Chromaticity, Mullae Art Factory M30, Seoul, Korea
	· Artist Support Program,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Korea	· MEET project,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Korea	· Gyeonggi Archive_Now, Sangsang Campus, Suwon, Korea
			· The Next Big Movement, Kimi ART, Seoul, Korea
			2014
			· Show Window Project: Being A Flâneur, 7 1/20, Round About, Seoul, Korea
			· Three Witnesses, Shinhan Gallery Yeoksam, Seoul, Korea
			2013
			· 신화와 전설, 고양아람누리

61

본인 인터뷰

Artist Biography

최재원 큐레이터

최재원은 과학과 테크놀로지 기반의 초학제 분야
큐레이터로 아트센터 나비 학예연구팀장,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백남준특별전 전시 총감독, 고등과학원 KIAS
초학제연구단 방문연구자, 서울역사박물관 돈의문전시관
<두 동네의 기억과 기록> 상설전시에 큐레이터로 참여했고
서울시 기념공간인 <독립운동가 가족을 생각하는 작은
집>에 전시기획 총괄로 참여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강사, 고등과학원 KIAS 초학제연구단
방문연구자, 국제큐레이터포럼 ICF 펠로우로 활동하고 있다.

Curator Jaewon Chey

Jaewon Chey works i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y-
based interdisciplinary field as a curator, artist, and art
critic. Also a lectur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he is
Visiting Research Fellow of the Independent Research
Group MATTEREALITY, Transdisciplinary Program,
Korea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KIAS; Chief Curator
at Art Center NABI; International Curators Forum (ICF)
Fellow; lives and works in Seoul.

퀀텀점프 2019 릴레이 2인전

정재희
《이상한 계절》
2019. 9. 17. — 2019. 11. 10.

박미라
《밤물결》
2019. 11. 19. — 2020. 1. 19.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주최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도미술관, 경기창작센터

경기도미술관
전시총괄

관장
안미희

학예팀장
김종길

큐레이터
김지희

학예지원
구정화, 이수영, 최혜경, 강민지,
조은솔

행정지원
조지연, 배지현, 김지수

시설지원
김경욱, 김정윤, 김진혁, 문종욱,
이상숙, 임웅선, 정영애, 조만흥,
천정연, 한종국, 허제규

전시보조
최미영, 박현정

인턴
전승혁, 지윤구, 김보경, 박수민,
양연정

경기창작센터
창작지원

경기창작센터팀장
조광연

큐레이터
방초아

멘토링 및 전시평론
큐레이터 최재원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발행인
강현

편집인
조광연

발행일
2020. 3. 31

편집기획
방초아

교정교열
방초아, 김지희

영문번역
라이온코리아

사진촬영
정재희, 조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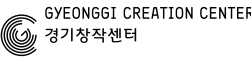
도록디자인
워크스

본 출판물은 경기도미술관과
경기창작센터의 협력 사업인
퀀텀점프 2019 릴레이 2인전의
보고를 위해 (재)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본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도미술관, 경기창작센터,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없습니다.

(재)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gmoma.ggcf.kr
031.481.7000

(재)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gcc.ggcf.kr
032.890.4820

ISBN
978-89-999-0179-9



**Quantum Jump 2019
2 Artists Relay Show**

Jaehee Jung
Strange Season
Sep. 17, 2019. — Nov. 10, 2019.

Mira Park
The Waves at Night
Nov. 19, 2019. — Jan. 19, 2020.

Project Galler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Hosted b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Organized b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Exhibition**

Director
Mihee Ahn

Chief Curator
Jong-gil Gim

Curator
Jihee Kim

Curatorial Support
Jeonghwa Goo, Sooyoung Lee,
Hyekyoung Choi, Minji Kang,
Eunsol Cho

Administrative Support
Jiyeon Cho, Jihyun Bae, Jisu Kim

Facility Support
Kyungwook Kim, Jungyun Kim,
Jinhyuk Kim, Jonguk Moon,
Sangsook Lee, Woongsun Lim,
Youngae Jung, Manheung Cho,
Jungyeon Chun, Jongkook Han,
Jegyu Heo

Curatorial Assistant
Meeyoung Choi, Hyunjung Park

Intern
Seunghyuk Jun, Yungu Ji,
Bokyeong Kim, Sumin Park,
Yeonjung Yang

**Gyeonggi Creation Center
Creation Support**

Director
Kwang-yeon Cho

Curator
Choah Bang

**Mentoring & Critique
Curator Jaewon Chey**

Publication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Publisher
Hun Kang

Editor
Kwang-yeon Cho

Date Of Publishing
Mar. 31, 2020

Editor
Choah Bang

Proofreading
Choah Bang, Jihee Kim

Translation
LioNKorea

Photography
Jaehee Jung, Youngha Cho

Catalog Design
WORKS

This book i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report of
***Quantum Jump 2019 2 Artists
Relay Show*** supervised b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 Gyeonggi Creation Center.**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 Creation Center, and
artists(author).**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268 Dongsan-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gmoma.ggcf.kr
+82.31.481.7000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yeonggi Creation Center**
101-19 Seonham-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Korea
gcc.ggcf.kr
+82.32.890.4820

ISBN
978-89-999-0179-9

